

마음 건강 바로 알기



집중력

"수업 중에 꼼지락거리거나 친구들과 장난치면서 이야기하고, 친구랑 같이 떠들어도 나만 수업 태도가 안 좋다고 선생님께 지적받을 때도 많아요. 수업내용과 관계없는 질문을 해서 수업을 방해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체육시간이나 만들기 활동을 할 때는 집중을 잘해요. 장난이 심해서 친구들과 시비가 붙기도 하고요. 부모님이 이야기할 때는 잘 듣지 않고, 숙제할 때도 계속 '이것만 하고요.' 하면서 스마트폰만 보고 있기도 해요."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ADHD, Attention-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는 집중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는 데 ADHD라고 해요.
정말인가요? **집중력과 주의력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 📌 '집중력'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 몰두하는 힘을 의미합니다. **ADHD** 자녀는 **집중력은 괜찮지만 주의력은 낮을 수 있습니다.** 게임같이 본인이 흥미를 느끼는 활동에서는 몇 시간씩 집중하기도 합니다.
- 📌 '주의력'은 하기 싫더라도 해야 하는 일이라면 과제에 집중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주의력의 문제는 자기 통제 및 자율성의 부족, 과제에 대한 동기 결여, 계획 능력의 결핍 등과 관련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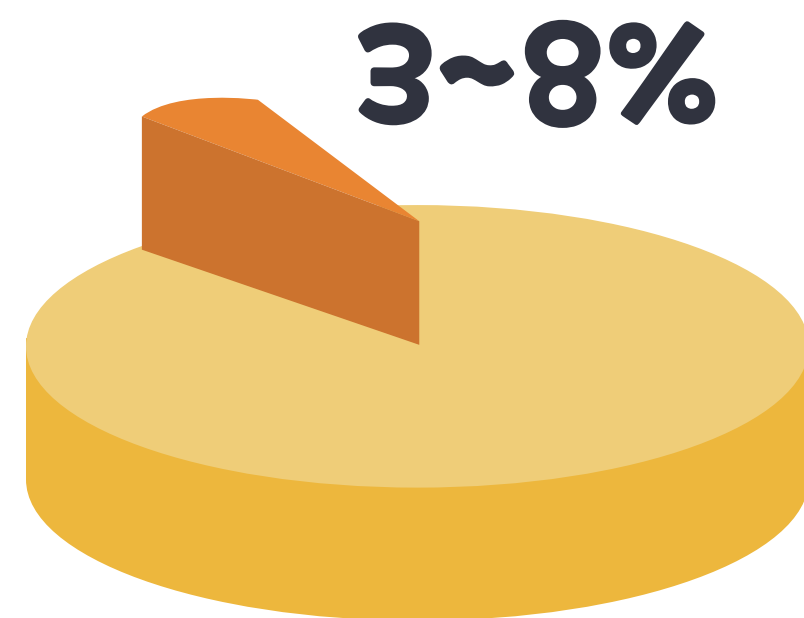
왜 사람마다 주의력이 차이가 날까요?

ADHD 원인이 무엇인가요?



ADHD는 다양한 유전적, 환경적 위험 요인들이 모여 발생합니다. 유전과 환경적 위험 요인들이 어느 정도 쌓이면, 신경학적 이상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ADHD 증상이 나타납니다. ADHD는 '뇌 발달과 기능 저하의 문제'가 보호자의 잘못된 양육법이나 학생의 나쁜 습관보다 더 근본적인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ADHD 증상을 보이는 학생들은 얼마나 많나요?



전 세계적으로 **3~8%가 ADHD**를 경험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ADHD 치료율은 10% 이하입니다. 치료율이 낮은 이유는, 자녀가 치료받고 있는 것을 교사나 주위 사람들이 알게 되었을 때 자녀에게 편견을 갖게 되어 자녀의 학교생활에 어려움이 생길 것을 우려하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적절한 치료를 방해하는 ADHD에 관한 오해는 무엇인가요?

1 약을 꼭 먹어야 하나요?

약물 치료는 ADHD 아동의 70~80%에서 매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약물 치료뿐만 아니라 교육적 개입, 인지행동치료, 부모교육, 사회기술 훈련 등의 치료를 보조로 사용하여 ADHD에 따른 이차적인 정서 및 행동 문제들을 치료합니다.



2 ADHD는 평생 치료해야 하나요? 약을 언제까지 먹어야 하나요?

ADHD가 청소년기까지 지속될 가능성은 최소 50%, 성인기까지 지속될 가능성은 35% 정도입니다. ADHD 증상이 오래 유지되는 경우는 증상이 심각했을 경우, 동반 질환이 있었을 경우, 가족력이 있었을 경우라고 합니다. ADHD 증상을 치료하고 동반된 문제를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오히려 ADHD가 오래 유지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확인해 주세요.

ADHD 아이를 키우는 보호자 10명 중 6명이 우울감을 느낄 정도로 보호자의 부담은 큼니다. “ADHD 아이를 키우는 게 그렇게 힘들다는데, 잘 버티고 있다.”라는 위로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많이 좋아졌다.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서 꾸준히 치료를 받게 해라”라고 힘을 주는 사람이 가장 고맙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 같은 보호자의 마음으로 우리 ADHD 아이를 지켜주시고 곁에서 응원해주세요.**



본 카드뉴스는 교육부와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가 한국학교정신건강의학회에 의뢰하여 제작한
“우리들의 마음건강 이야기” 10호입니다.